

# '에디터쉽' 정착 위한 편집실무지침서

## 범우사刊 「도서편집총람」과 안그라픽스刊 「편집디자인」

편집·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실무지침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편집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그동안 체계적인 이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경험에 의존해온 부분이 적지 않았던 국내 출판계로 하여금 '출판에 관한 출판물'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보를 비롯한 각종 잡지와 단행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획에서 원고청탁·교정·레이아웃·광고 등 책을 만드는 전과정을 망라하는 이들 출판관련 실무지침서는 앞으로 더욱 세분화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보다 전문적인 '에디터쉽'을 강조하는 편집자를 위한 책까지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도서편집총람」(이종운 지음, 범우사)과 「편집디자인」(젠 화이트 지음, 안상수·정병규 옮김, 안그라픽스)이 바로 화제의 책으로, 두권 모두 출판계 일선에서의 저자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면서도 전체적인 일의 진행과정상에서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한편 종래의 '단순 복제자'로서의 편집자의 위상을 '독립적인 창조자'로 격상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도서편집총람」은 '版面編輯'이라는 개념으로 편집자의 역할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편집자는 단순히 대상 원고를 활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고의 이미지를 조판재료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표현해내는 '판면구성자'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전제가 된다. 즉 편집자는 저자의 저작물 내용이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오해없이 전달·표현될 수 있는 판면구성으로 저자와 독자사이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집자는 "저자의 입장에서 원고내용의 외적 측면을 담당할 자료, 경영자의 입장에서 상품으로서의 장정의 내적 측면을 담당할 자로서, 창의적이고 지적이며 기술적인 사고활동의 전문가"으로 정의된다.

원고의 입수과정까지와 인쇄·제책과정(생산과정)을 제외한, 순수편집과정만을 대상으로 한 이 책은 크게 다섯부분으로 나눠 판면편집을 설명하고 있다. 1부에서는 판면편집의 의의와 판면편집자에게 요구되는 감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획의도의 파악, 정확한 조판재료의 사용, 판면의 단순화 등을 판면편집의 원칙으로 꼽고 있다. 2부에서부터는 직접 실무와 연관된 각론으로 판면의 구성요소를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나눠 전자에 해당하는 별행잡기, 표기통일, 항목달기, 조판원칙, 교정원칙 등과 후자에 속하는 판면크기, 면분할, 문자의 서체 및 크기, 자간, 행간, 별면처리, 항목처리, 도표처리, 수식처리, 여백처리, 면주처리, 주달기, 改行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전산조판 뿐 아니라 특히 활판 작업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책은 문장부호의 엄격



한 사용을 강조, 방대한 '정서표기자료'를 첨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편집디자인」은 다른 출판물보다 디자인의 비중이 훨씬 큰, 잡지편집에 관한 입문서이다. 출판제작에 있어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흔히 인식되는 편집과 디자인을 "내면에 들어있는 사고는 같으나 테크닉면에서만 틀리게 나타나 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얼굴"로 보는 저자는, 이 책의 궁극적 목적이 잡지의 기본개념과 그 개념들이 편집자와 디자이너에 의해 잡지제작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 목적의 성공적인 완성

을 위해 편집자와 디자이너 상호간의 의사소통, 즉 상대방의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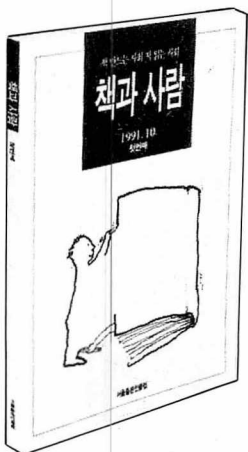
잡지를 "지면을 넘김에 따라 펼침쪽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일련의 연속되는 사건"으로 정의함으로써 '3차원으로서의 잡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이고 있는 저자는, 이 개념을 전제로 '패턴과 잠재력을 가진 지면' '출판물의 섬유구조에 해당하는 타이포그래피' '사진으로 된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외의 일러스트레이션' '색상' 등의 분야로 나누어 디자인의 잠재적인 응용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외국잡지의 사례들을 풍부하게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을 소재로 삼는 등 독특한 서술방식이 눈길을 끌기도 한다. 펼침쪽을 날쭉처럼 다루는 아이디어와 글과 사진을 섞는 방법을 비롯해 잡지 제작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의 소개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한팀으로 서로 대화하는 데 익숙해지기 위해 참석자들의 전문적 경험과 개인적 취향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편집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정소연 기자

# 책 읽는 사회 위한 출판인들의 제언

## 서울출판인클럽이 펴낸 무크 「책과 사람」



직업출판인들의 모임인 '서울출판인클럽'이 "책을 만들고 쓰고 전파하는 일에 전문직업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세계와 세계관, 그리고 그 주장을 담아낼" 무크 「책과 사람」을 창간했다.

'책 만드는 사회 책 읽는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출판계의 역량 결집과 전문적인 직업의식을 강조하며 출발한 「책과 사람」은 창간 특집으로 김연호(한길사 대표), 김종수(도서출판 한울 대표), 박기봉(비룡출판사 대표), 이기웅(열화당 대표), 장석주(청하출판사 대표)씨가 참가한 집중토론 '출판이 왜 국가사회

발전전략의 중심부가 되어야 하는가'를 마련해 이제까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돼오던 출판을 구체적인 산업의 차원에서 그 조건과 한계, 전망 등을 심도있게 진단했다.

또한 이어령 문화부장관과 「서울신문」 문화부장 임영숙씨의 특별대담도 마련, '한국출판 10단계 계획안'을 밝힌 바 있는 이장관의 출판계 지원방안을 자세히 들려주고 있으며,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상을 요약한 황기원교수(서울대, 도시환경설계)의 특별기고 「책 만드는 도시의 스케치」를 실었다.

이밖에도 현암사, 보성사, 일지사, 평화출판사, 지식산업사, 다산출판사, 언어문화사, 정신세계사, 열린책들 등 고집과 개성으로 현재 나름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출판사 대표들이 회고하는 출판에 얽힌 뒷이야기와 민음사의 박맹호 대표를 집중조명한 출판인 인물평 '한국

의 출판인과 출판사', 그리고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안성효씨와 이윤기씨가 저술한 '자필이력서'도 흥미롭다.

권말에는 시리즈로 선보이게 될 '기획연구' 첫번째로 한국사분야를 선정, 임영대씨(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논문을 실어 해방 이후 연도별 관련 출판물 발간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출판인들이 직접 기획해 펴내는 본격적인 무크로 출판계 안팎의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책의 편집기획위원으로는 강희일(다산출판사 대표), 이동명(언어문화사 대표), 박기봉, 박지열(서울출판서비스 사장), 김수경(열음사 대표), 최선호(청하문화사 대표), 임성규(문이당 대표), 김진묵(혜서원 대표), 장석주, 김종수씨가 참가.

한길사/A5신/220면/5000원